



##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선미촌

선미촌의 시작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 선미촌이라고 불렸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유곽으로 시작해 미군 위안소가 되었다가 한국 전쟁 이후에 현재의 위치(서노송동, 옛 전주역 뒤편)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선미촌은 60년대 이후 점점 확대되어 2004년 성매매방지법 집행 이전까지 80~90여개 업소에서 300~400여명의 여성이 인권을 박탈당한 채 생활하고 있었고, 아직도 30여개 업소에 40여명의 여성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선미촌 걷기'는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다.



- ❶ 선미촌 유리방 뒤편의 폐가. 한때 업소로 쓰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 ❷ "첨엔 높은 굽을 신고 발이 꺾여 가지고 김스도 하고, 나중엔 적응되니까 그거 신고 뛰어도 가고.. 굽이 30센치나 되니까"
- ❸ 전주시에서 매입한 업소의 복도. 복도 양옆으로 10개의 방이 붙어있다.

## 선미촌 리본 Re-Born

선미촌의 면적 12,140㎡. 축구장 1.7배 크기다. 이 곳에 성착취를 당하는 여성 300~400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업주들, 성매매를 위해 들락거리는 남성들, 그리고 청소나 식사를 도우며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까지 어림잡아도 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밤마다 모이고 흩어 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여성은 가장 약자의 위치에서 자유를 속박 당하고 성매매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고 있었다.



- ❶ 속칭 유리방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업소. 아직도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만 '선미촌 걷기'가 진행된다.
- ❷ 업소 복도 전경. 붉은 조명이 업소의 흔적을 보여준다.
- ❸ 업소 내부 복도에 적힌 여성들의 이야기.

3 선불이 얼마인데...  
 #13  
 암마가 말한다.  
 "호객 행위를 해야 할꺼야"  
 "저기. 차 그냥 지나가네"  
 "핸드폰 보지 말고"  
 "너 다이어트약 먹어! 요즘 살쥔거 많아 그래서"  
 ...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는 착취와 폭력

전주시는 단번에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지 않고,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차근 차근 여성 인권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여성들이 성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다. 집결지 안의 업소를 매입하여 문화 예술 전시 공간과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업주와 일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전주시는 전담부서를 현장에 설치하는 과감한 행동을 보였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노력, 예술가들의 참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더해 행정기관의 물질적, 행정적 지원이 보태지면서, 선미촌은 지금까지 외면당하던 여성 인권에 대해 반성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 변화와 기억

전주에서 매입하고 예술가들의 참여로 변화하고 있는 선미촌을 3시간동안 빠짐없이 걸어 본다. 공원, 문화·예술 작품 전시공간으로 재탄생 하고 있는 선미촌은 업소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이곳에 머물렀을 여성들의 고통과 두려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기억되고 있다.

16년에 걸친 노력 끝에 재탄생 하고 있는 선미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겠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❶ **곳.** 2018. 최은우\_성착취가 이뤄지던 공간. 외부와 연결된 것은 작은 환풍기와 출입문뿐이었다. 최은우 작가는 역압의 기억과 흔적을 떠나보내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자 그림으로 창을 만들고 흰색으로 빛을 표현했다.
- ❷ 업소로 쓰던 폐가에 꾸며진 공원 "기억공간"
- ❸ 기억공간 "오래되고 닫혀있던 공간이 열리고 그 공간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흔적들을 꺼냈다."



## 2018년 성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2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정책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전 지역 사업의 여성주민 참여 현황 및 어려움, 욕구 등을 파악하고 ‘여성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모니터단은 9월 3일, 첫 만남을 갖고 모니터링 취지 및 목적, 진행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전세종연구원 미래전략실 겸인섭 책임연구위원의 ‘도시재생과 젠더관점 여성참여’ 교육에 참석했다. 9월 21일에는 1차 워크숍을 개최해 모니터링 진행 일정 및 현장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념’, 선정된 ‘대상사업의 추진계획 및 특성’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심화교육이 있었다.

시민모니터단은 10월 동안 현장 방문 및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단의 다양한 제안사항 도출을 돕기 위해 10월 중 2차 워크숍을, 11월 중 3차 워크숍을 실시하고, 각 대상사업별로 도시재생 및 젠더 전문가 멘토링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활동을 공유하는 최종 결과발표회는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1 발표 연인섭 대전세종연구원미래전략실 책임연구위원(9.3.)  
2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1차 워크숍(9.21.)



## 도 시 재 생 에 젠 더 를 입 히 다

### 대전세종 정책엑스포 2018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발굴 및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대전시와 세종시의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식견을 갖춘 전문가와 시민들의 토론의 장,

『대전세종 정책엑스포 2018』을 10월 24일~25일에 개최합니다.

**"도시재생에 젠더를 입히다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여성참여"**

라는 주제로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도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8년 10월 25일(목) 10시

장소 | 옛 도청 소회의실

주제 | 도시재생에 젠더를 입히다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여성 참여

진행사회 |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좌장 | 최해경(충남대학교 교수)

발표 | 1 젠더 관점에서 본 강릉시 도시재생사업  
김만재(강릉원주대학교 교수)

2 세아이의 엄마 아름다운 대동을 꿈꾸다.  
오진주(대동아름다운마을만들기 위원장)

3 젠더관점을 고려한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추진 방향  
염인섭(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 김현채(대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선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성은(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